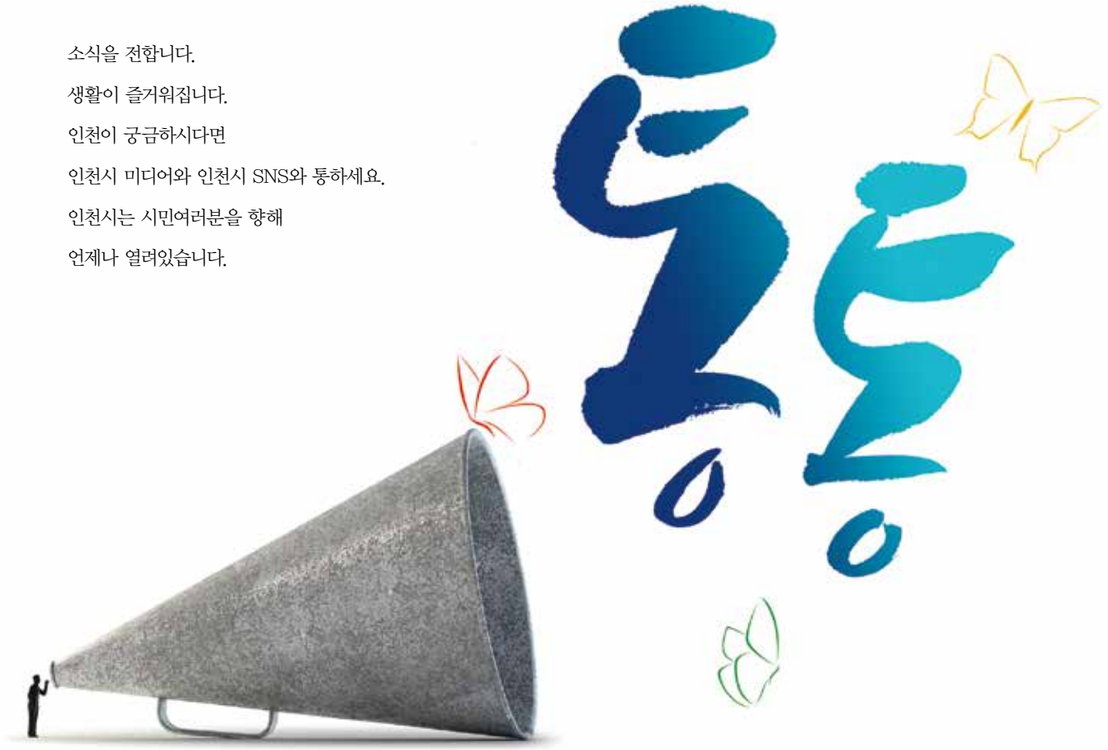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social.incheon.go.kr)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incheonblog.kr)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02

인천시는 2015년 4월 23일부터 1년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수도입니다

INCHEON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WORLD BOOK CAPITAL

밤

김 소 월 _ 1902~1934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워요
맘에는 사뭇 차도록 그립워요
이리도 무던히 그리던 것이
아주 얼굴조차 잊힐 듯 해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운데요.
이곳은 인천의 제물포, 이름난 곳,
부슬부슬 오는 비에 밤이 더디고
바닷바람이 칩기만 합니다.

다만 고요히 누어 들으면
다만 고요히 누어 들으면

하얗게 밀어드는 봄 밀물이
눈앞을 가로 막고 흐느낄 뿐이얘요.

1922년 2월 '개벽' 20호로 등단하면서 발표한 시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CONTENTS 2015. 02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4**

니하오 요우커 | 중국 관광객 방문 06
중국을 만나다 | 광저우 12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인천의 작은 도서관 14
인천 이야기 | 괭이부리마을 '굴막' 공동작업장 20
포커스 | 키워드로 본 2015 주요 사업 22
다녀오겠습니다 | 세상을 배워 온 여섯 악동 26
그때 인천 | 인현동 전자상가 28
화보 | 얼음낚시 34
까치발로 본 인천 | ② 숭의로터리 → 전도관 36
내 일 내 길 | 47년 헌책방 운영 이진규 선생 40
NEWS BRIEF 42
COUNCIL NEWS 46
CULTURE INFO 48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50
INFO BOX 52
인천 사는 이야기 56
이달의 책 57
모닝 커피 한잔 | 김영승 시인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2월 5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정정호·김상덕·유창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VER STORY

2015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수도 인천'의 해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활자 역사,
인천과 관련한 책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열려 책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굿모닝인천'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TO. 굿모닝인천

시장과 시민, 마주 보고 공감하다

'굿모닝인천' 1월호에서 시민 원탁토론회 관련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 매월 소개해주어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중요한 성과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포부 등을 상세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강화군 강화읍

인천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합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인천의 미래는 밝으리라 믿습니다. 전철역 대합실이나 승강장의 비어있는 간판에 시정 추진사항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김용순** 연수구 송도동

인천의 장점과 가치를 발전시키길

원탁 시민토론회에서 펼쳐진 민선 6기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제공항을 품은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천으로 사람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사회, 정치, 경제 다방면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길광섭** 충남 금산군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잉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 go.kr)

인천시 SNS

소셜웹(social.incheon.go.kr)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incheonblog.kr)

@120incheon

어제 뉴스에 방송된 인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 150만원에 귀가조치가 내려졌네요. 어린이 인권의 가치가 고작 150만원인가요? 인천의 인권 수호는 1위 아니었나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 현재 수사를 진행 중으로, 관계 기관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이 크셨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꼭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인천터미널까지 가려는데 24번 버스는 그냥 지나가고, 36번 버스는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그냥 출근한다고 대답했는데 끝까지 목적지를 물어보네요.

↳ 간혹 잘못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을 위해 기사님이 재확인차 여쭙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운수업체에는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스하게 보내세요.

계산역 정류장에 79번 버스 두 대가 왔습니다. 승객들이 앞차에 타려고 뛰어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뒤에 오는 버스에 승차했습니다. 버스 번호별 승차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시민이 도로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추운 날씨에 불편하셨을 텐데, 120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향후 정책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고광우(25, 부평구 산곡동)

내가 사는 인천, 정말 자랑스러워!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집에서 바다가 보이느냐'고
할 정도로 인천은 항구도시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도시,
마치 외국 같은 송도 등 지인들의 달라진 인식을 접하며 인천이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세련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이지만,
저는 여전히 정이 넘치고 따뜻하다는 이유로 이곳이 좋습니다.
저희 가족 다섯 명은 모두 매월 '굿모닝인천'을 즐겨봅니다. 볼거리가 많고 인천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난 1월호의 '니하오 요우커'에서 제가 사는
동네인 부평지하상가를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미로처럼 끝없이 펼쳐진 지하상가는 없는 게 없는 보물 천국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인천의 구석구석을 여행시켜 주시길
기대할게요. 인천도, '굿모닝인천'도 응원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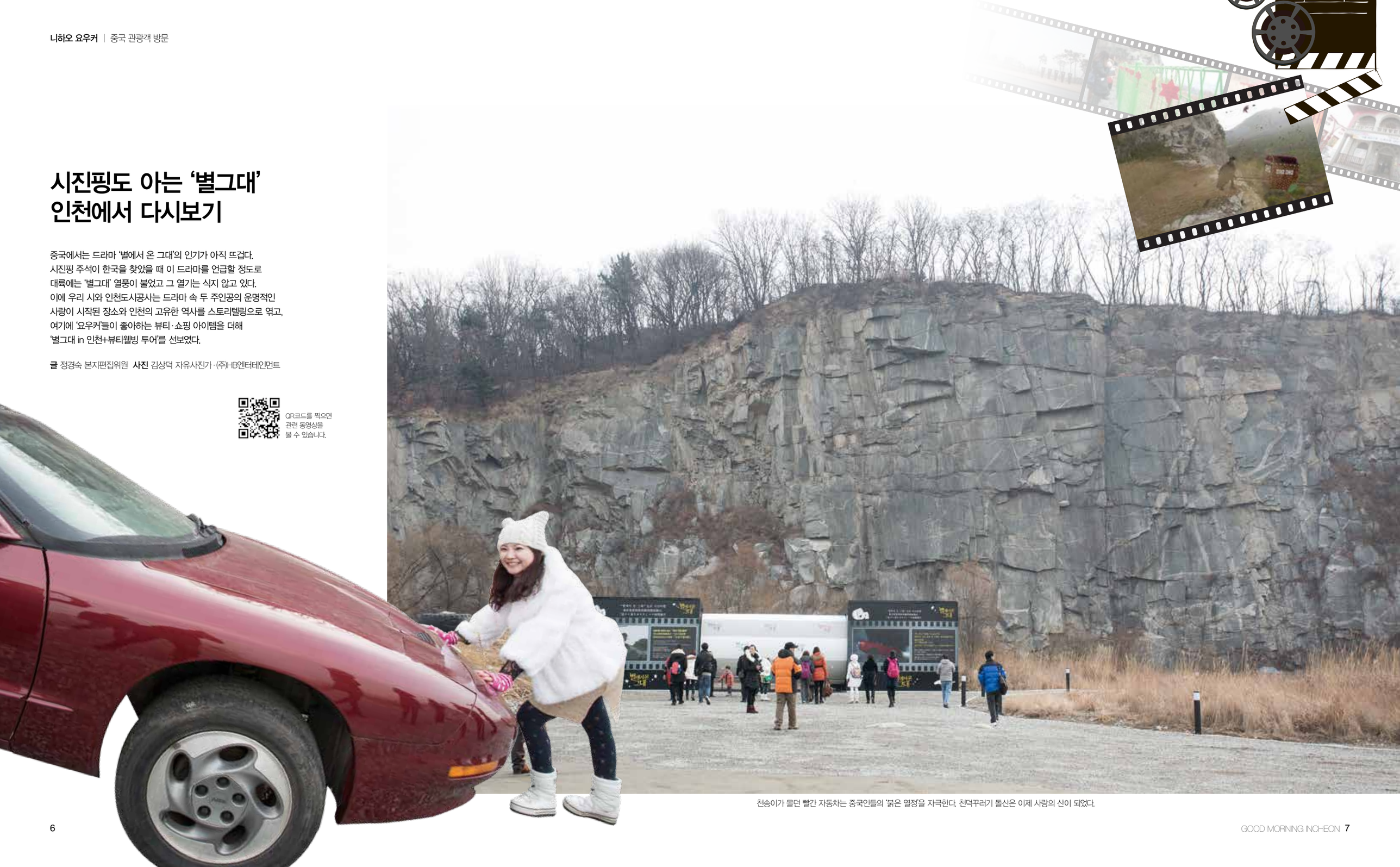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시진핑도 아는 '별그대' 인천에서 다시보기

중국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가 아직 뜨겁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았을 때 이 드라마를 언급할 정도로
대륙에는 '별그대' 열풍이 불었고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드라마 속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장소와 인천의 고유한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엮고,
여기에 '요우커'들이 좋아하는 뷰티·쇼핑 아이템을 더해
'별그대 in 인천+뷰티웰빙 투어'를 선보였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주)HB엔터테인먼트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천송이가 몰던 빨간 자동차는 중국인들의 '붉은 열정'을 자극한다. 천덕꾸러기 돌산은 이제 사랑의 산이 되었다.

천송이가 앉아 있던 강의실, 도민준이 서 있었던 그 강단에서 요우커들은 환희의 셔터를 누른다. 이 순간 그들은 천송이가 되고, 도민준이 된다.

'별그대' 찾아, 중국에서 인천으로

이른 아침, 영하로 곤두박질한 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로 모여든다. 시끌벅적한 낯선 언어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아침 정적을 깨운다. 드라마 속 400년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은 매서운 겨울 추위도 잊게 한다.

"여기를 기억하시나요? '천송이'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차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던 그 주차장입니다. 그때 도민준이 와서 매니저를 자칭하며 천송이를 구하지요. 여기서 바로 '도 매니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들리는 환호성.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뜨겁다.

다음 코스는 정보기술대학 제7호관 안에 있는 강의실. 도민준과 천송이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빵점'짜리 과제물로 다투며 알게 모르게 사랑을 꽃피우던 곳이다. "천송이가 앉아 있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자가 저 자리에 앉으면 천송이가 되고, 남자가 이 교단 앞에 서면 도민준이 되는 겁니다." '찰칵~찰칵~'. 너도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이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느라 분주하다.

드라마와 뷰티, 한류 포인트로 유혹

대륙에서 아직 인기가 식지 않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다. 이에 우리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관광 상품 '별그대 in 인천+뷰티웰빙투어'를 선보였다. 지자체가 직접 개발한 관광 상품으로는 전국 최초로, 각국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다. 먼저 중국과 일본 관광객 3만5천 명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올해 안으로 1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하남성에서 온 요우커 40명이 대륙에서 바다 건너 인천을 찾았다. 이달에는 700여 명, 3월에서 12월까지 매달 2천여 명 이상이 이 상품을 통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인천에 머무르며 인천대학교, 인천시립박물관, 송도석산 등 두 주인공이 시대를 초월해 운명적인 사랑을 이어 가던 장소를 둘러보았다. 여기에 인천 화장품 홍보전시관 '휴띠끄', 오감을 짜릿하게 하는 '비밥공연', 성형미용 투어를 함께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요우커들은 '별 비녀'를 석산 난간에 걸고 사랑을 갈구한다.

스토리를 더 하면, 여행이 더 특별해진다

'별그대 in 인천'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송도석산'이다.

도민준은 이곳에서 400년 전 조선 시대의 이화와 현세의 천송이를 두 번이나 위험에서 구하며 우리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했다.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송도석산은 20년이 넘도록 방치돼 오다 '별그대'가 전파를 타면서 신분이 급상승했다. 네티즌들 사이에 '별 그대 절벽'이라 불리다, 최근 천송이와 도민준의 앞 글자를 딴 '천도 절벽'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도민준이 천송이를 구한 곳에 오다니 감격스러워요. 처음 인천대학교에 갔을 때부터 천도 절벽에 온 지금까지 그들의 흔적을 좇을 수 있어서 기뻐요." 양신제(30)씨는 배우 김수현 앓이를 하는 '별그대' 팬이다. 천송이가 몰던 빨간 승용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천대교 너머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어떤 여행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석산 한편에서는 프랑스의 퐁네프 예술의 다리나 남산의 '사랑의 자물쇠 걸기' 현장처럼 특별한 풍경이 연출된다. 드라마 속 두 주인공처럼 사랑이 영원하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의 별 비녀'에 정성스레 담겨 난간에 가지런히 줄지어 있다.

'사랑은 영원하다. 천리를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남편 그리고 다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인천을 찾은 전빙(37)씨도 비녀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난간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 그중에서도 인천에 오게 돼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그 환한 웃음이 중국에 이어 더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그대'처럼 사랑하고, '천송이'처럼 예뻐지는 여행

세계를 하나로 잇는 공항과 항만, 168개의 섬을 품은 바다, 도시 곳곳에 깊게 밴 역사와 현실로 펼쳐진 상상 속 미래. 인천에는 몸 달지 않고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매력이 살아 숨 쉰다. 그중에서도 한류와 뷰티·쇼핑은 요우커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관광 포인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 발길 닿는 곳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별그대 in 인천+뷰티웰빙투어' 속으로 떠나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대학교는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와 발을 맞추고 있다. '별그대'의 도민준이 강의하는 장면을 이 학교에서 촬영했다. 도민준과 천송이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빵점' 짜리 과제물로 다투고, 도민준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천송이를 구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강의실과 주차장, 심지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던 건물 앞 계단까지 관광명소가 됐다. 835-8114

인천 화장품 공동판매점 '휴띠끄'

'휴띠끄(Huetique)'는 전국 최초의 지역 화장품 공동판매점으로, 주요 타깃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다. 2012년 차이나타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회관 2호점, 인천항 출국장 3호점을 열어 인천의 화장품 업체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천 화장품 제조사의 공동브랜드인 어울(Oull)은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우커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77-5711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 주변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원 한가운데 바다가 흐르는 센트럴파크, 외계인 도민준이 지구로 왔을 때 탔을 법한 트라이볼 등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솟은 동북아무역센터, GCF 사무국이 있는 G타워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다. '한물간' 스타 천송이가 매니저 없이 스스로 운전해 등교하는 장면, 도민준이 천송이의 위험을 직감하고 빗속을 질주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인천시립박물관

1946년 4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 수만 년 전 선사시대부터 격동의 20세기까지 인천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연구한 사료를 전시하고 있다. 천송이가 조선시대 흑백사진 속 도민준을 발견하고, 도민준이 비녀가 보관된 유리함을 초능력으로 깨트리는 장면을 촬영했다. 비녀는 두 사람의 사랑을 400년간 이어 준 매개체로 드라마에서 사용한 소품을 2층 '별그대' 포토 존에 전시하고 있다. 이 비녀를 보기 위해 매월 3천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박물관을 찾고, 박물관 옆 인천상륙작전기념관까지 둘러보고 있다. 440-6750

차이나타운

한국 철도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인천역. 그 맞은편 중구 북성동 일대가 차이나타운이다.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요릿집 공화춘을 개조해 지은 짜장면박물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중국 절 의선당,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 등이 명소. 화교 2~3세들이 그들 나름의 비법을 이어가는 중국 요릿집이 즐비해, 아무 곳이나 골라잡아도 기본 이상은 한다. 화덕만두와 월병, 공갈빵 등 한국에서 맛보는 중국식 별미도 놓칠 수 없다. 760-7537

'천도 절벽' 송도석산

송도석산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하다가 중지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곳이 인천의 진산이자 비류가 미추홀의 도읍으로 정했던 문학산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극중 도민준이 조선 시대의 이화와 현세의 천송이를 두 번이나 위험에서 구하면서 유명해졌다. 천송이가 몰던 빨간 자동차, 가마 등 포토 존이 마련돼 있다. 특히 '사랑의 별 비녀'를 석산 난간에 걸며 소망을 비는 풍경은, 서울 남산이나 프랑스 퐁네프 예술의 다리를 연상케 한다.

코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송도국제도시 → 인천시립박물관 → 송도석산 → 차이나타운 → 휴띠끄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67
인천도시공사 260-5328

니하오~ 인천으로 오세요

한류가 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여기에 쇼핑관광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세계 관광의 큰손인 요우커를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을 시 핵심 10대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중국 언론과 여행사, 국내 중국인 대상 여행사 등과 협력하고, 중국 최대의 지역 정보 플랫폼인 '따종디엔핑'에 인천을 홍보해 도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 중국의 3대 IT 기업인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유치하고, 중국 카드사와 업무제휴도 추진 중이다. 요우커를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요우커들이 즐겨 찾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같은 쇼핑타운을 인천에도 육성할 계획이다. 명품 상가, 대형 식당,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그들을 유혹할 예정이다. '요우커'들의 취향에 맞춘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별그대 in 인천+뷰티웰빙투어'는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접 개발한 관광 상품이다. 한류를 일으킨 드라마 촬영지를 밑바탕으로, 인천의 고유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 상품화했다. 시는 요우커를 시작으로 한 이 상품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지역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광저우에서 보낸 잊지 못할 72시간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의 성도(省都)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도시다. 20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중국 변화의 중심에 서서 소리 없이 세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광저우는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다.

제공 시 관광진흥과 **정리**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높이 610m의 광저우 타워

중국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의 성도이자 화남지방 최대의 무역도시. 행정구역은 8개 구와 4개 시로 나뉜다. 2000년의 긴 긴 역사를 품은 도시로 동북부와 중부는 산지와 구릉지대, 서남부는 평원지대로 이뤄져 있다.

면적 7천434km²
인구 1천400만 명(2013년 기준)
기온 연평균기온 21.8℃,
1월 평균기온 13.3℃, 7월 평균기온 28.4℃

편하게 광저우를 누리세요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덕분에 바이윈국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한국 등 45개국의 관광객은 중국 비자 없이도 광저우에 72시간 머무르며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단 활동 범위는 광둥성 내로 제한되며, 총 72시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오전 8시 정각에 바이윈공항에 도착했다면, 무사증 체류 시한은 이튿날인 2일 0시부터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적용된다. 광저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관광 명소들을 살펴보자.

인천시는 중국 각 도시와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올해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과 중국 매체 간에 홍보 기사 교환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광저우(廣州)입니다. 광저우는 우리 시의 우호 도시이자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지구 : 아시아태평양 도시 간의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 도시입니다. 인천시를 알리는 기사는 광저우 여유국 사이트(www.visitgz.com)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높은 '광저우타워'

높이 610m의 광저우타워는 광저우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중국에서 제일 높은 타워로, 세계 셋째 순위를 자랑한다. 특히 밤에 유람선에서 보는 모습이 아름답다. 전망대에 오르면 광저우 시내를 한아름 품을 수 있다.

예술특구 '얼사다오'

얼사다오(二沙道)는 주강에 솟은 작은 섬으로, 하이인대교와 광저우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다. 현대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싱하이 뮤직홀과 광저우미술관 등 예술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광저우 예술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4대 불교 사찰 '류롱스'

광저우의 '4대 불교 사찰' 중 하나다. 류롱스(六榕寺)라는 이름은 송대 으뜸가는 시인 소동파가 사찰 내 여섯 그루의 용수 나무를 보고 '육용'이라는 휘호를 쓰면서 연유했다. 사찰 내에 높이 57.6m의 팔각 화탑이 있다. 고대 광저우에서 보기 힘든 고층 건물로 탑 꼭대기에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다.

책보다 더 큰 지식을 얻는 '첸지아쓰'

중국의 10대 성씨 중 하나인 진씨 일족이 청대에 창건한 서원으로, 현재는 민속 문화와 공예 문화를 선보이는 '광둥민속공예박물관'으로 통한다. 첸지아쓰(陳家祠)가 청나라의 민속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한 한 문인은 '자연의 창조 능력에 버금간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10년 동안 읽은 책에서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젊은이들의 밤 '팡쿤 바 스트리트'

광저우 주강의 강남 쪽에 위치한 팡쿤 바 스트리트는 해가 지면 거리 전체에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인다. 강바람을 맞으며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광저우 젊은이들의 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진주처럼 빛나는 '주강'

광저우를 가로지르는 주강(珠江)이 '진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재미있는 전설이 흐른다. 남월국의 왕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진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 왕이 죽자 진주는 그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한 학자가 위험에 빠진 요정을 구해줬고 요정은 왕릉에 묻혀있던 진주를 선물했다. 학자는 이 진주를 페르시안 상인에게 비싼 값에 팔았는데, 상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수로 진주를 강에 빠뜨렸다. 그 후 이 강은 진주처럼 맑고 영롱해졌고, 주강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광저우를 가로지르는 주강(왼쪽), 팡쿤 바 스트리트

숲, 골목, 시장에서 '책'을 만나다

동네 사랑방 같은 작은 도서관.
엄마와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아이가 돌아다닌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엄마가 아기를 안고 편안하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곳이다. 작은 도서관이어서 가능하고,
작은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친근한 풍경이다.
작은 도서관은 책을 통해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교류의 공간이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숲에서 그림책을 보고 느끼다

바람숲그림책도서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책갈피로 스며든다. 강화도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모아둔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화의 풍광 안에 둥지를 틀고 그림책과 자연의 교감을 시도한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나무의 일생이 담긴 그림책을 본 뒤 곧바로 뒷산으로 달려가 나무를 만져보고 나무의 생태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국내 최초의 그림책 도서관이다.

이곳에 소장된 그림책은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림책이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그림책에는 삶과 자연을 대하는 철학이 녹아 있어 어른들에게도 힐링이 된다. 자연의 모습을 생생히 그린 책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까지, 그림책 하나하나가 진귀한 보물이다. 이 도서관은 우리나라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다며 15년 동안 그림책을 모아온 최지혜 관장의 꿈의 실현이다. 그림책은 자연생태, 창작, 인물, 옛이야기, 역사 분야로 나누어진다. 2천500여 권의 장서가 서가를 장식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그림책만 보는 것은 아니다. 강화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기다린다. 그림자극, 책을 여는 음악회, 나를 찾아서, 곤충 이야기, 함께 사는 우리 등 자연을 배우고, 마음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즐비하다. 도서관 오픈은 수요일~일요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체험 프로그램에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위치 강화도 불은면 **문의** 070-4109-6280

책,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도서관

시장 바닥 한가운데에 도서관이 있다고? 인천 동구 송현동 송현시장에 가면 시장 구경도 하고 책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골목도서관이 있다. 2011년 문을 연 이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잦다.

이 도서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책수레' 서비스다. 시장 상인들에게 책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도서관 직원들이 수레에 책을 싣고 직접 상인들에게 책을 전달한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아이들과 상인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장체험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일명 '시장골목탐험대'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직접 시장을 보면서 우리 동네 시장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 밖에도 전래놀이, 전통요리, 인문학 수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수시로 열어, 회원은 물론 동네 주민, 시장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위치 동구 송현동 송현시장 내 **문의** 766-3092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한다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책 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사람 냄새가 더 진한 도서관. 이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이라기보다 마을 사랑방에 가깝다. 풀뿌리미디어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사는 동네 이야기를 읽고 들을 수 있다.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동네를 공부하고 동네 사랑을 키워간다.

이 도서관이 가장 자랑하는 프로그램은 미디어 도서관답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제작 활동이다. 아이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찍고 직접 출연까지 하며 단편영화를 만들어 낸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에 출전해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미술'도 이 도서관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놀이터'가 운영된다.

인천 서구에 있고, 마을에 사는 주부 4명이 모여 만들었다. 올해로 설립 4년째를 맞고 있다.

위치 서구 연희동 727-7 **문의** 582-3080

가족 대출 '삐삐의 책가방' 인기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 도서관은 작년 '삐삐의 책가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삐삐의 책가방'에는 말괄량이 삐삐가 그려진 천 가방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책 4권, 퍼즐, 산가지 놀이, '호랑이와 곶감' 전래동화 놀이가 그려진 그림자놀이 기구, 인형 등이 담겨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 단위 대출 서비스로,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며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도서관은 또, 어머니들이 선정한 좋은 도서를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읽어주는 '백 권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사고력을 길러주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24개월 미만 유아들이 책을 가지고 놀며 친해지는 '달토끼마을', 그림책을 공부하는 모임인 '얘기보따리' 등의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관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자랑한다. 1998년 열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위치 연수구 연수동 **문의** 818-0645

문화와 책 접목한 '책을 타고 슝슝'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회원들이 직접 도배하고 공간을 꾸며 2013년 10월 개관했다. 약 5천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기할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타고 슝슝'이라는 책 놀이이다. 요리와 만들기, 전래놀이 등 다양한 문화를 활용하여 책을 읽고 함께 활동하는 프로젝트다. '와글와글놀이터'는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기획됐다. 도시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배우는 '도토리농부학교', 전래놀이, 지역 주민, 상인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여는 '와글와글골목축제' 등도 열어 지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조를 이뤄 협동 게임도 진행하고 각자 밥도 직접 지어 먹고 밤에 영화 보며 보물 찾기, 미션 수행 등을 통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위치 남동구 만수동 **문의** 466-4865

또 다른 작은 도서관

짱뚱이어린이도서관 _ 얘들아, 물고기처럼 잘 놀아라

도서관은, 지나가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짱뚱이어린이도서관의 모토다. 짱뚱이라는 이름은 짱뚱어라는 물고기가 활발하게 잘 노는 것이 어린이들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다. 짱뚱이에서는 고아원이나 중증장애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오른발, 왼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역사 북아트'는 인천의 역사를 배우고 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이 대상이다.

위치 연수구 청학동 **문의** 814-0377

콩세알어린이도서관 _ 지역 주민의 '문화 요람'

옛 선조들이 콩 세 알이 있으면, 하나는 날짐승을 주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먹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해 보관했다는 이야기에서 이름을 딴 콩세알어린이도서관. 푸른생협에서 출발했다. 다세대주택 등이 많은 낙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요람'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마들의 역사 공부 모임인 '뿌리깊은 나무',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고전수다'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책읽기 프로그램인 독서놀이, NIE 신문교육, 책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치 남동구 만수동 **문의** 464-2348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_ 자연과 교감 '생태교실' 인기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은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도서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던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서관이다. 집에서 쓰던 책장과 의자를 가져오고, 서가에서 잠자던 책들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특화 프로그램인 '어린이 생태교실'은 매월 1회 외부 강사와 함께 생태 환경이 좋은 장소를 찾아 생태 놀이, 생태 감수성 키우기 활동 등을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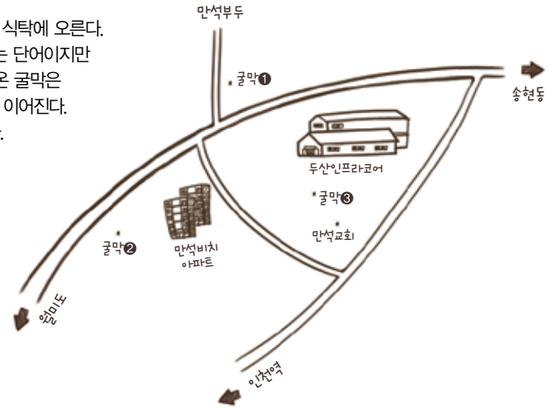
위치 부평구 산곡3동 **문의** 521-2040

작은 도서관 명칭	전화번호	작은 도서관 명칭	전화번호
동인천동 작은도서관	032-760-6216	향촌작은도서관	032-461-1734
용유동 작은도서관	032-751-7990	꿈사랑나눔 작은도서관	032-464-0302
현안 작은도서관	032-528-1009	와글와글작은도서관	032-466-4865
단비도서관	032-777-3025	숲속마을작은도서관	032-433-0620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032-880-5271	산뒤마을어린이문고	032-423-8977
희망을주는도서관	032-884-9901	푸르내도서관	032-212-7100
꿈이크는도서관	032-764-3223	꿈나무작은도서관	032-509-7894
햇살마루작은도서관	032-777-7942	샘터작은도서관	032-509-8017
송림휴먼시아 작은도서관	032-764-5577	희망천작은도서관	032-509-8623
솔숲 작은도서관	032-765-2660	산곡글향기도서관	032-509-8625
아침햇살도서관	032-890-7304	글마루도서관	032-509-8883
상상 작은도서관	010-4593-6073	동수작은도서관	032-509-8354
해맑은작은도서관	032-773-1733	민들레 작은도서관	070-4129-1739
꿈의별작은도서관	032-762-7942	무지개도서관	032-362-0866
솔방울작은도서관	032-761-1682	열우물 어린이 도서관	032-421-8343
송림마을작은도서관	032-773-3218	신나는 도서관	032-521-3763
밝은웃음어린이도서관	032-876-2430	달팽이미디어도서관	032-526-5204
도화꿈꾸는작은도서관	032-865-8002	여울 작은도서관	070-8179-4745
하늘꿈도서관	032-762-6655	동그라미도서관	032-330-0532
큰나무도서관	032-429-7278	품앗이어린이도서관	032-504-4020
반딧불이 도서관	032-883-2386	옹달샘 도서관	032-277-2262
꿈드림 작은도서관	070-4205-5922	꿈이 있는 도서관	070-8934-0715
드림 작은도서관	032-873-2888	꿈땅 도서관	070-7878-6026
석바위도서관	032-422-0651	청소년인문학도서관 doing	070-8247-3669
복사꽃도서관	032-865-8632	쑥덕쑥덕 작은도서관	070-7515-3621
제물포도서관	032-887-8836	엘림작은도서관	032-519-9191
작은도서관 너나들이	032-817-7290	늘푸른도서관	032-528-4020
목민작은도서관	032-822-1949	해오름 작은도서관	032-207-5395
해모로 도서관	032-203-7322	꿈바라기 영어도서관	032-523-6060
북센터	032-833-0812	푸른나래도서관	032-513-3508
꿈이있는 작은도서관	070-8924-0117	푸른초장도서관	032-541-8981
웰카운티 작은도서관	032-831-9350	로뎀나무작은도서관	070-8782-7212
지혜샘터 작은도서관	032-813-2791	꿈이있는 작은도서관	032-555-7676
해맑음 작은도서관	032-835-5124	고려작은도서관	010-3016-6359
푸른마을함박도서관	032-822-1082	꾸메땅 작은도서관	010-6323-6122
글마루	032-832-3581	맑은샘어린이도서관	032-507-1933
엄마사랑 작은도서관	032-817-8512	무지개뜨는어린이도서관	032-552-5200
조약돌 북센터	070)8910-7661	꿈나무작은도서관	010-2754-1362
꿈나무도서관	032-471-6355	가재울 작은도서관	032-560-3391
반디어린이도서관	032-432-557	꿈꾸는 작은도서관	032-578-7721
마중물도서관	070-8873-0193	회화나무 도서관	032-560-3116
하늘빛도서관	032-207-1388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032-573-1662
행복한작은도서관	032-422-8291	정다운 도서관	032-562-1202
꿈다락도서관	070-7560-5304	한국민들레 도서관	070-7509-9394
햇살둥지어린이도서관	032-463-8161	물푸레 작은도서관	032-563-1739
희망도서관	032-462-4203	민들레 도서관	070-7560-9198
콩세알도서관	070-8847-2348	느티나무 도서관	032-581-4048
범마을도서관	070-7627-0202	거북골 작은도서관	032-201-9811
자람터작은도서관	032-446-6264	푸른숲 작은도서관	032-567-1004
별빛마을도서관	032-421-9610	힐데스 작은도서관	032-564-4401
등마루도서관	032-453-5483	드림하이 작은도서관	070-4217-1005
나무와책도서관	032-464-7975	꿈마을 작은도서관	032-561-1154
한마음도서관	032-423-0623	새일꾼 작은도서관	032-562-0671
큰사랑도서관	032-465-9151	하늘샘 작은도서관	070-7863-6603
도림도서관	032-438-0062	화개 작은도서관	032-930-4502
혜린도서관	032-461-0707	하점작은도서관	032-930-4276
푸른솔도서관	070-8881-3178	화도작은도서관	032-930-4243
불서사랑도서관	032-442-9910	사과나무작은도서관	032-933-0333
벽산도서관	032-468-8005	자람도서관	032-937-2597
그루터기도서관	070-8635-8515	순무작은도서관	032-937-3971
성산도서관	032-437-2500		

그들은 거친 삶의 껍질을 깐다

인천은 바다 도시다. 바다는 우리에게 '갯것'을 준다.
대표적인 먹거리는 코끝 싸한 날 먹어야 제맛을 알 수 있는 굴.
굴은 인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아낙들의 손을 거쳐 식탁에 오른다.
굴 까는 아낙들이 모여 있는 굴막. '굴막'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인천에 엄연히 존재하는 공간이다. 우리네 어려운 삶과 함께해 온 굴막은
현재 만석부둣가❶, 만석고가교 밑❷ 그리고 괭이부리마을❸로 이어진다.
거친 바다를 두른 굴에서 아낙들의 희망이 짭조름하게 넘실댄다.

글·사진 김애란 자유기고가



본격적으로 굴 까는 계절이 오면 그들 손에서 물 마를 날이 없다. 짜디짠 바닷물에 손이 부르트도록 쏟아내는 것은 우유 빛깔의 굴 속살이다. 인천 바닷가에서 채취한 굴은 말캉말캉 싱싱하고 부드럽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굴막공동작업장'의 굴은 아낙들의 한숨이며 미소다.

굴막은 지난해 추석 때부터 사용했다. 동구청이 낡은 판잣집 몇 채를 사서 주민들을 위해 공동작업장 굴막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마을 길거리에 그냥 비닐 천막을 치고 굴을 깠다. 굴막은 전체 3칸으로 한 칸에 서너명 씩 모여 앉아 작업을 한다. 괭이부리마을 사람만이 이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

작업장 유리문 너머로 온기가 전해진다. 문을 열자 찬바람 부는 문 쪽을 향해 고개만 돌린 채 고영자(70) 씨는 쉼 없이 손을 놀린다.

"쉬엄쉬엄 까고 있지. 이거 하나 먹어 봐~."

통통하게 영근 굴을 입에 넣어 준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전해진다. 그는 부모와 함께 황해도에서 피란 나와 64년 꼬박 괭이부리마을에서 살고 있다. 굴막 한쪽에서 속살을 드러낸 채 주인을 기다리는 뽀얀 굴들이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옆 칸에서는 개흙을 털어내는 물청소가 한창이다. 굴 깐 지 40년이 넘었다는 조봉희(62) 씨는 부엌, 마루 등 집 안에서 굴을 까다 마당, 길거리에 이어 이곳 굴막까지 왔다. 굴 까는 일로 환갑을 넘긴 그에게 괭이부리마을은 고향이다. 굴 까느라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그는 다른 아낙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며 어려운 살림을 보탰다. 그나마 이곳은 바다가 가까운 덕에 굴 까기로 끼니는 이을 수 있었다. 현재 이곳 굴막의 굴 값은 물 빼고 kg에 1만 3천원, 1관에 5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곳에서 까는 굴은 주로 연안부두나 재래시장에서 소매업을 하는 단골고객에게 넘어간다.

"김장이 끝나 요즘은 조금 덜 바쁜데 그래도 아침 6시에 나와 굴을 까. 나보다 더 오래 굴을 깐 어르신들이 있어."

괭이부리마을의 굴 까기를 전수해준 어르신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8,90세가 됐다. 그들은 굴을 받아서 까는 요즘과 달리 직접 바다에 나가 굴을 따다가 깠다. 지금은 전설이 된 이야기를 굴 껍데기에 담아 달큼한 맛으로 전수한다.

좁은 굴막에 다시 굴이 쏟아져 내린다. 굴을 내리는 유병오(49) 씨의 어깨가 묵직하다. 무의도에서 굴을 따 왔다는 그는 물때를 따라 인천 앞바다의 이곳저곳을 누빈다. 배가 나가지 않을 때면 그도 여기서 굴을 깐다.

추위에 얼어붙은 굴처럼 괭이부리마을의 판자촌은 겨울바람에 다닥다닥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 아낙들은 오늘도 좁은 굴막에서 그들의 거친 삶의 껍질을 까며 고된 하루를 보낸다.

괭이부리 굴막 위치 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28호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인물·섬 '재발견'한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 인천의 자산은 무엇일까. 인천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해양 도시로,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천의 섬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산으로 재창조된다. 또 역사적으로 인천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천의 인물'을 새롭게 발굴하고 조명한다. 2015년엔 인천에서 국제적 메가 이벤트인 '프레지던츠컵' '세계교육포럼' '2015 세계 수도 인천' 등 국제 행사가 열려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인천을 빛낸 인물 재발견, 재조명

인천을 빛내거나 큰 족적을 남긴 인천의 인물들을 재발견한다. 유정복 시장은 생존해 있는 '저명 인사'를 포함해 인천의 인물을 조명 하고, 인천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천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선정해 인천인들의 끈끈한 정서와 정신을 잇자고 말했다. 인천 인물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천 동산고 출신의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류현진 선수와 1964년 도쿄올림픽 레슬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장창선 전 태릉선수촌장 등이 있다.

인천 인물을 조명하는 작업은, 그 인물의 생애가 곧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반영하고 후세에 인천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메가 이벤트 '세계교육포럼'

세계교육포럼은 올해 5월 19일부터 4일 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 포럼은 세계 교육분야 최대 행사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천5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9월 세계교육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한국대회의 목표는 19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RA)' 운동과 '2000년 채택된 개발목표(MDGS)'의 교육분야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 교육의 아젠다를 선정하는 데 있다.

이번 포럼은 세계시민교육(GCE)과 ICT, 행복교육 등 한국적 의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본 행사 전체회의에서 한국 교육에 관한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포스트-2015' 교육의제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 한국적 의제 확산을 위한 주도적 실천전략도 마련한다. 인천시는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육부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행사 홍보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섬 명품 섬, 힐링의 섬으로 재탄생

인천이 가진 160여 섬이 인천의 경쟁력이 된다. 시는 보석 같은 섬들을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서해 5도, 강화도는 안보 평화의 섬으로, 중구 소무의도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간으로, 북도·자월도·볼음도·주문도·장봉도 등은 생태관광 섬, 덕적도는 에코 아일랜드로 조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명품 섬과 더불어 찾아가고 싶은 섬도 만들어 섬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게 된다.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교동도에 근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이작도, 볼음도에는 바다, 저어새 생태마을, 나그네 섬 덕적도에는 전망대, 습지 관찰 데크, 생태체험센터가 건립된다. 치유의 섬 승봉도에는 승봉도 이야기 전시관, 하경공도 무인도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춤추는 섬 소무의도는 갯벌체험장, 바다 시장, 문학관 등이 만들어진다.

인천의 섬과 갯벌은 힐링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한다. '10도10색'의 방식으로 섬마다 테마를 정해, 관광객들이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인증샷으로 찍고 참여토록 한다. 중구의 작은 섬 세어도는 공공 프로젝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세어도의 민가나 폐가에 벽화를 그려 예술이 살아있는 섬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게 된다.

INCHEON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WORLD BOOK CAPITAL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다채로운 행사

인천시는 4월 세계 책의 수도가 된다. 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주제를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으로 정하고, '책의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타 도시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로서, 고려 팔만대장경, 조선외규장각(의궤 보관) 및 정족산 사고(실록 보관) 등이 있어 기록문화의 전통이 유구하다.

올해 세계 책의 수도 개막 주간인 4월 22~24일에는 시내 곳곳에서 기록 문화 토론회, 판각·인쇄·독서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책 관련 행사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귀빈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기록문화와 책 산업을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주요 사업은 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화된 국제도서전을 기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월에 아라뱃길 리딩보트(Reading Boat), 팔만대장경 이운 행사, 독서, 백일장이 잇따라 열리고, 6월에는 지적재산권 등 책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꿈의 무대'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세계 골프 팬들의 '꿈의 잔치'라 할 수 있는 프레지던츠컵이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인천 송도국제업무 지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다.

대회 개최국의 국가 수반 또는 최고 지도자가 명예 의장직을 수행하는 전통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2015 프레지던츠컵의 명예 의장을 맡게 된다.

팀 대항전 방식인 프레지던츠컵은 12명의 미국 선수와 비 유럽권 국가 선수 12명 등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프레지던츠컵은 비 유럽권 출신의 최정상 골프 선수들이 국제적인 팀 대항 매치플레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 대회는 타 골프 대회와 달리 독특하게도 상금이 없다. 대신 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단장, 부단장은 자신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모금된 기부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기부한다.

1994년 첫 대회 이후로, 현재까지 모인 자선금액은 2013년 500만 달러(한화로 약 51억 5천만원)를 포함해 미화 3천200만달러(한화 329억원)에 달한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이번 프레지던츠컵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 세계 골프투어 중 가장 진화된 조직인 미국 PGA투어의 다양한 노하우가 녹아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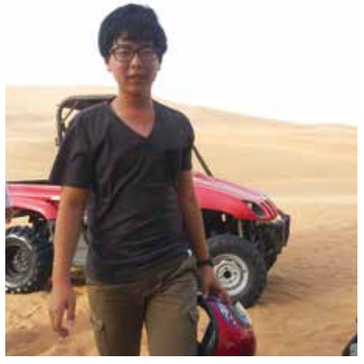
프레지던츠컵은 세계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전 세계 225개 국가 및 지역에 30개의 언어로 10억이 넘는 가구가 이 대회를 시청하며, NBC, The Golf Channel on NBC (국외), SBS, SBS Golf (국내)와 더불어 세계 유수의 방송과 통신, 여론들이 일제히 송도국제도시를 조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대회 개최에 발맞춰 송도국제도시를 배경으로 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본 대회를 통해 1억4천300만 유로(약 2천80억원)의 이득이 예상된다.

엄마, 나 갔다올게!

27일간 사춘기를 넘어 세상을 배워 온 여섯 악동들

어쩌면 사람도 처음부터 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한, 날지 못할 거라는 어른의 의심이
그들을 날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의심 가득한 세상을 향해 중학생 6명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글·사진 이현주 자유기고가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 나는 알아 내겐 보여 /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 뜨겁게 꿈틀거리는 /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출처 러브홀릭스 노래 butterfly(버터플라이)

여행일기 '엄마, 나 갔다올게!'

엄마, 나는 누구인가요?

안찬욱(인천남중 3), 김대경(인천남중 3), 김대호(선인중 3), 장수연(상인천여중 3), 안민서(인천남중 3), 권오상(인천선인중 3) 6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 사이다. 십여 년 지기지만 그들의 관심은 누가 몇 개 더 맞았는지, 전교 몇 등인지에 있었다. 친구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몰랐던 그들이 중학교 2학년 시절 문득 떠나고 싶었다.

그 시기 누구나 그렇지만 부모님과의 마찰, 꿈에 대한 막연함,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한창 피어야 할 나이에 점점 시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6인방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영국, 프랑스, 두바이 여행을 훌쩍 떠난다.

세계로 go, go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가고 싶은 장소 한 곳을 각자 정했다. 여행에서 서로 해야 할 역할도 한 가지씩 정했다. 찬욱이는 보스(대장), 대경이는 커멘더(지휘관), 대호는 내비게이터(조종사), 수연이는 에디터(편집장), 민서는 사진, 오상이는 머니키퍼(돈 관리자)라는 각자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유를 즐길 생각에 키득키득 마냥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여행이 하루를 넘어서자 자신을 돌봐줄 부모님이 없다는 현실이 슬퍼 서로 부둥켜 울었다.

27일간의 여행은 순탄치 않았다. 아토피가 심했던 대호는 유럽 더위에 아토피 피부 관리가 쉽지 않았다. 수연이는 두바이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집이 아닌 곳에서 용변 보기를 꺼리던 민서는 여행 내내 화장실이 문제였다. 오상이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비 오는 날 한없이 숙소까지 걸어야 했다.

여행 발자국, 책 한 권으로 꾸욱 남겨

27일간 매일 쓴 일기장은 책 한 권으로 탄생했다. 여행 중 에피소드와 느낌을 책으로 엮는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사진을 고르고 자신들의 일기를 정리하는 데 일 년이 걸렸다.

2014년 가을, '엄마, 나 갔다올게!'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여행일기를 출판했다. 그들만의 일기가 모두의 꿈이 되는 순간이었다. 평범한 중학생들이 쓴 책의 초판 1천부가 완판되었다. 교보문고에서 책 출판회도 열었다. 저자 사인회를 갖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믿기질 않았다.

평범했던 나비 여섯 마리, 날다

학원에서 만나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던 그들이 과감히 책장을 덮자 세상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던 아이의 교우 관계가 달라지고, 약하기만 했던 아이는 사막여행서 가장 끝까지 체력을 유지해 강한 아이로 변모했다. 매사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아이는 웃음을 되찾았다.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려면 외국어가 필수임을 깨닫고 스스로 책상에 앉기 시작했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를 풀지 않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했던 아이들에게 여행은 세상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비는 누에고치 속 접은 날개를 말린 후 날아오른다. 나비가 누에고치 안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고 나는 방법만 이론적으로 배우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지, 온 힘을 다해 누에고치서 빠져나와 힘차게 날아오를지는 어른들 격려에 달려있다. 처음부터 의심 없이 손뼉 치고 격려했다면 인간도 날 수 있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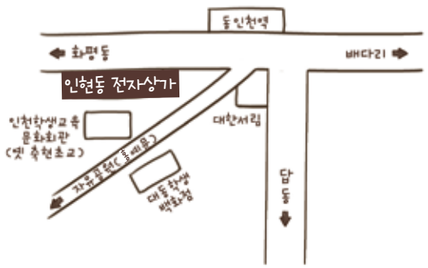
인천의 '세운상가' 인현동 전자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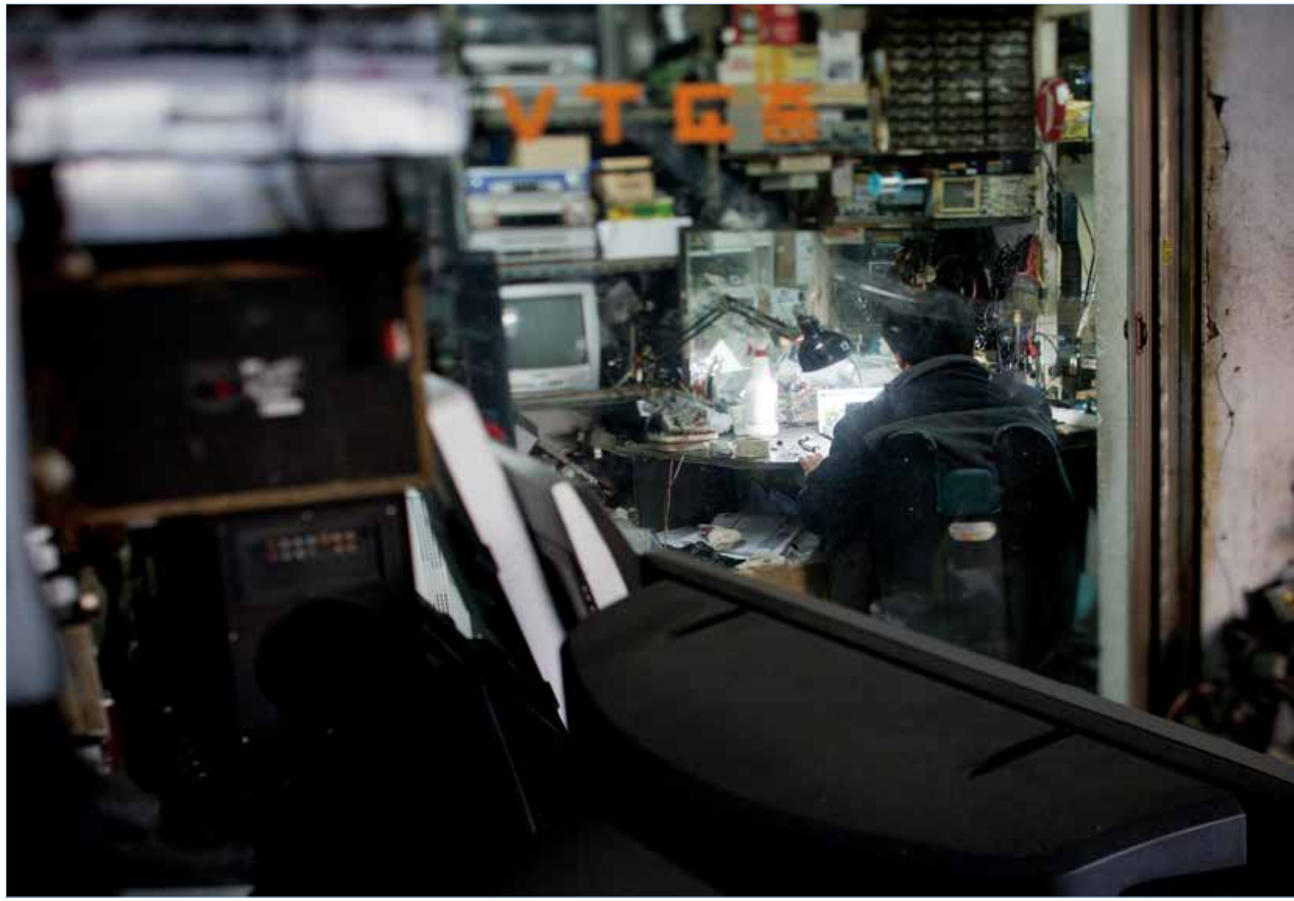
보물 같은 '고물' 캐내던, 보물섬

시대의 흐름 앞에 속절없이 밀려났지만, 중구 인현동 일대는 한때 인천 최고의 번화가였다.
제물포고, 인천여고, 인일여고 등 학교가 몰려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상가가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인천역 건너편, 일제강점기 양조장으로 사용하던 빨간 벽돌 건물 안팎으로 조성된 인현동 전자상가는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다. 전자기기나 부품이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었고,
과연 쓸 수 있을까 싶은 고물도 주인장의 손길 몇 번이면 '번쩍번쩍' 근사한 새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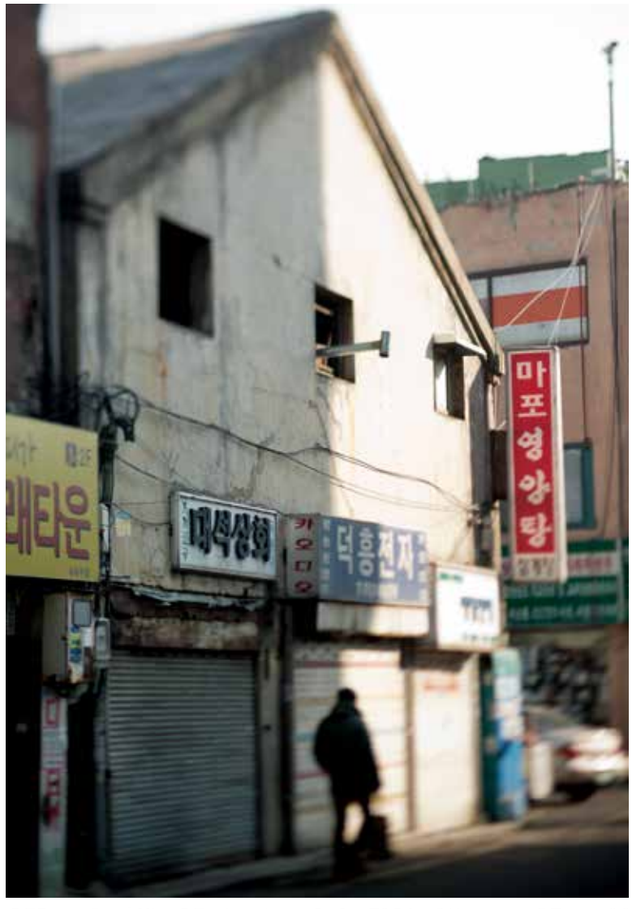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형 헬리콥터도 만들 수 있다던 그들이었다. 그 '마이더스의 손'들이 하나둘 가게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간의 무게, 변화의 바람에 내몰려….



"작동될지 모르겠네…" 80년대 만든 테이프를 넣는 카 오디오는, 주인장의 손길을 거친 후에도 결국 켜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옅게 번진다.

세운상가 부럽지 않던 '인현동 전자상가'

1970·80년대 서울에 미사일이나 잠수함도 만든다던 '세운상가'가 있었다면, 인천에는 소형 헬리콥터 정도는 거뜬했던 '인현동 전자상가'가 있었다. 한창때 30곳이 넘는 점포가 자리 잡고 있던 상가는 듬성듬성 빠져나가 이제 스무 곳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골목 곳곳에 셔터를 굳게 내린 텅 빈 가게에는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간판만이 애처롭게 달려 있을 뿐이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기다렸는데, 이제는 파는 사람들만 남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당시 동인천은 인천의 메인이었고, 이 일대는 서울의 청계천 세운상가처럼 번성했어요. 인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요." 30여 년 전부터 인현동 전자상가를 지키고 있는 '화음상사'의 강현식(49)씨가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한다. 그가 만든 카 오디오를 달기 위해 차 10여 대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건 일상이었다. 미로 같은 골목 깊숙이에서 만난 '동원전자'의 이지훈(59)씨도 이곳의 전성기를 말해준다. '뒤쪽' 송현동에서 태어나, '앞쪽' 인현동에서 장사하며 살아 온 그도 한때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 호시절을 누렸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많이들 찾아왔어요. 여기서 트럭 가득 물건을 싣고서는 인천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 거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다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가게 구석진 자리에는 멀리 바다 건너 온 손님들과 나눈 추억이 담긴 빛바랜 사진첩만이 먼지 속에 뒹굴고 있다.

초등학교 담장 앞 좌판에서 꽃핀 역사

인현동 전자상가의 시작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자리인 축현초등학교 뒤편 담장 앞에는 3.3㎡(1평) 남짓한 구멍가게들이 줄느런히 이어져 있었다. 상인들은 좌판 위에 광석 라디오, 선풍기, 진공관 텔레비전, 온갖 부속품을 늘어놓고 팔았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고쳐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고물들이지만 늘 사람들로 들끓었다.

"내 기억으로는 굉장했어요. 나도 수리 기술을 배우고 부속품을 사러 많이도 왔다 갔다 했지. 50대 내 또래 인천 사람들 중에 소싯적에 좀 놀았다면 용동 큰우물 주변에서 먹고 마셨을 것이고, 기술 배우는 사람들이나 공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려들었어요. 당시 인천에서 전자기기 파는 데라곤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신흥전자'의 진흥범 씨는 축현초교 담장 앞 좌판 상인들에게서 기술을 배워 가게 문을 열었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자기기와 부품은 죄다 내놓고 팔았던 좌판은 1970년대 후반 학교 앞에 큰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됐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계속 장사할 사람은 남아 옛 양조장 건물로 입성하면서 인현동 전자상가의 역사는 계속된다.

다시 오지 않을, 잘나가던 그 시절

"198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90년대에 학교가 하나둘 터를 옮기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동네가 죽어버렸어요. 송림공구상가가 생기면서는 여기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이 많이들 넘어갔고요. 그러다 큰불이 나면서 동네가 텅 비어버렸지."

화려한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89년 동양최대 규모라는 인천산업유통센터에 이어 1994년 송림공구상가가 들어서면서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더니, 1999년에 인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면서 동네를 집어삼켜 버렸다. 여기에 재개발 소식까지 들리면서 인현동 전자상가는 그나마 지키던 불씨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기약 없이 새 주인 기다리는, 텅 빈 가게

45년 전 좌판 장사부터 시작한 '대륙전자'의 김동원(77세) 할아버지는 인현동 전자상가의 산증인이다. 전자기술자라면, 아니 인천 토박이라면 모르는 이 없는 대륙전자에는 전자부품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심지어 손님들을 빼앗아간 유통센터에서조차 부품을 구하러 온다. 하지만 저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먼지만 자욱이 쌓여가는 물건들 사이로 '점포임대' 안내가 시야에 들어온다. 차마 떠나지 못하고 긴 세월을 머물러 있던 할아버지도 이제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륙전자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꼭 새 사람이 와야 하는데. 인천에 기술자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부품을 찾아 많이들 오는데…. 그뿐인가,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나 다름없어. 여기가 없어지면 서로 얼굴들도 못 봐요".

1970년대 초 길바닥에서 시작해 화려한 시절을 거쳐 영욕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인현동 전자상가. 대륙전자는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둡고 황량한 상가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인파가 넘치는 도시의 거리로 길을 나선다.

'대륙전자', '우주전자'…
80년대 '대륙'을 꿈꾸고 '우주'를 꿈꾸며,
이곳을 드나들던 공학도와 기술자들은
자신의 꿈을 이뤘을지, 문득 궁금해진다

얼음장 밑에서 봄을 낚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겨울을 떠나 봄을 향해 달려가는 2월. 그렇다고 매서운 한파와 귓불을 얼얼하게 만드는 찬바람이 아주 물러간 건 아니다. 차가움과 따스함의 온도차가 공존한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아쉬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겨울이 주는 선물이 얼음낚시다. 아이들과 연인들, 친구들과 얼음 구멍에서 올라오는 작은 고기 빙어를 낚으며 즐거워한다. 작은 물고기지만 손맛이 느껴진다. 아이들은 얼음 구멍에 드리운 낚싯대에서 팔딱거리며 올라오는 은빛 빙어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표정이다. 잡힌 빙어들은 빙어통에서 투명한 몸을 드러내며 유유히 움직인다.

강화도에는 얼음낚시터가 세 곳 있다. 신선저수지, 황청낚시터, 인산낚시터다. 드넓은 이 저수지들은 여름에는 농업용 저수지이자 낚시터로, 겨울이면 얼음낚시터로 변신한다.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신선저수지는 빙어와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다.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 할 만큼 깨끗한 물을 자랑한다. 황천낚시터는 강화빙어축제장이라는 명칭을 처음 썼다. 강화빙어축제의 원조다. 강화에서 얼음이 가장 빨리 얼고 가장 늦게 녹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얼음낚시 외에도 인근 용두레마을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용두레마을 전통놀이는 예약해야 한다. 황청낚시터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다. 인산낚시터는 강화에서 유일하게 송어, 산천어 축제를 연다. 현재는 산천어는 하지 않고 송어 낚시만 즐길 수 있다.

현재 강화의 얼음낚시터들은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2월의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하기 때문이다. 대신 안전을 고려해 저수지나 낚시터 주변에 안전 좌대를 설치했다. 낚시터 상황은 미리 전화하고 체크하고 가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두꺼운 얼음 밑으로 강물은 언제나 그렇듯 유유히 흐른다. 겨울의 끝자락, 얼음낚시터에서 사람들은 투명한 빙어나 은빛 송어를 낚아 올리는 게 아닌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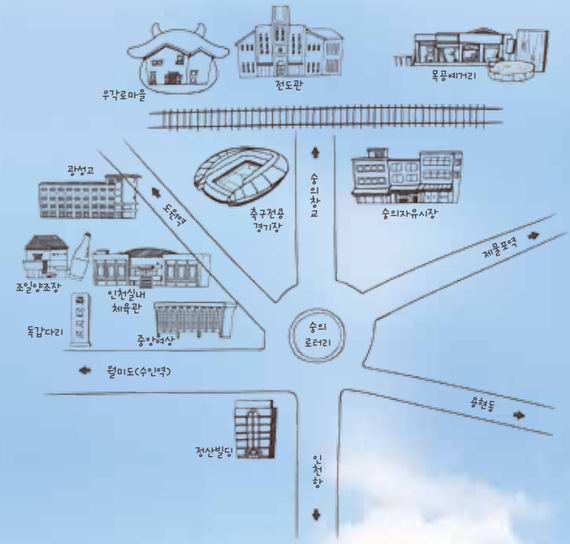
문의 신선저수지 933-1366, 인산낚시터 937-8788, 황청낚시터 933-0105

외계에서 날아온 UFO 숭의벌에 앉다

살짝 발뒤꿈치만 들어도 풍경은 달라진다. 늘 평지에서만 보던 거리나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은 너무 비싸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가 인천을 굽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숭의로터리 부근 빌딩 위에서 도원산과 전도관 쪽을 내려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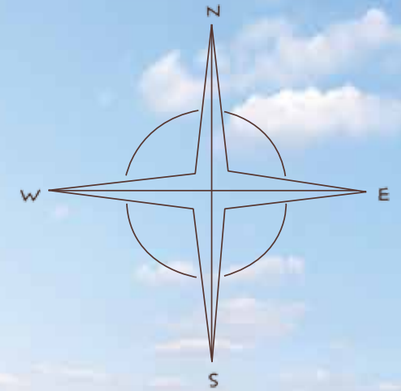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② 인천실내체육관 ③ 전도관 ④ 중앙여상(피병원) ⑤ 광성고
⑥ 조일양조장 ⑦ 독갑다리 ⑧ 숭의자유시장 ⑨ 목공예거리 ⑩ 우각로마을



까치발을 든 지점 | 숭의동 정산빌딩 (남구 인중로5)

숭의로터리 주변에는 큰 건물이 몇 채 있다. 대표적인 빌딩이 현대자동차인천영업소, 현대유비스병원 그리고 기호일보가 입주해 있는 정산빌딩(오른쪽 건물)이다. 이번에 까치발을 든 곳은 로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정산빌딩(12층) 옥상이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남구 숭의동 교차로에는 무려 여섯 갈래의 차로가 뻗어 있다.
차량이 물 흐르듯 갈 수 있게 오래전에 원형 로터리를 설치했다.
자동차들은 꼬리를 물며 눈치껏 제 갈 길로 갔다.
한때는 그 로터리를 돌아야만 도심에서 교외로, 교외에서 도심으로 오갈 수 있었다.
지금은 신호등으로 제어하는 로터리이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풍경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정산빌딩 옥상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시야가
도원고개와 숭의운동장 그리고 전도관에 다다른다.

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1934년 이곳에는 공설운동장이 들어섰다. 인천 사람들은 '그라운동장'(그라운드와 운동장의 합성어)이라고 불렀다. 세 번의 전국체전과 한 번의 소년체전을 개최했던 공설운동장은 2008년 6월 13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2012년 지하 3층, 지상 5층, 수용인원 약 2만 명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이 문을 열었다. 현재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다.

② 인천실내체육관 : 그라운동장 시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산기슭에 모여 앉아 경기를 공짜로 즐기곤 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모모산'이라고 불렀다. '모모'는 복숭아의 일본말이다. 1976년 이 산 정상 부근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다. 70년대 선인체육관과 쌍벽을 이루며 인천 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역도산'의 레슬링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이번 시즌부터 인천 연고 여자 프로 농구팀인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홈코트로 사용하고 있다.

③ 전도관 : 한 종교단체의 예배시설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지금은 비어있다. 한때 인천의 어느 곳에서나 한눈에 들어올 만큼 우람한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전도관이 세워지기 전, 1890년에는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의 2층 별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27년에는 이화여전 출신의 이순희 남매가 계명학원을 세웠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 분교가 개교하기도 했다. 1957년 10월 박태선 장로가 대표로 있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공사집' '선교사 집'으로 불리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전도관'을 세웠다.

④ 중앙여상(피병원) : 1954년 고 김응순 목사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성경구락부를 세운다. 이후 보합고등공민학교로 되었다가 인천중앙여상으로 발전했다. 1921년 이 자리에는 전염병 치료 병원이 들어서 있었다. 병원의 이름은 피할 피(避)자를 쓴 '피병원'이었는데, 6.25전쟁 중 소실되었다.

⑤ 광성고 : 인천 광성고의 역사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류충렬 씨는 부랑아들을 위한 직업소년학교(인천소년수양원)을 산꼭대기에 건립한다. 구두닦이 등 불우 청소년 약 500명이 모였는데, 교육은 물론 집 없는 아이들에게는 잠자리까지 제공했다. 이 수양원이 1965년 광성고등공민학교를 거쳐 오늘의 인천광성중·고교로 성장한다.

1

2

3

4

5

6

1 옛 인천공설운동장 2 전도관 3 숭의자유시장
4 옛 조일양조장 5 목공예거리 6 우각로문화마을

⑥ 조일양조장(터) : 조일(아사히)양조주식회사의 소주 공장이 1919년 10월 남한 최초로 개업했다. '금강표' 상표가 붙은 이 회사의 소주는 만주, 사할린 등지에 진출할 만큼 인기를 끌었고,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축구팀을 창단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광복 후 미군정의 양조 금지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6.25전쟁 직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줄곧 비어있던 공장 터는 1978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위해 실내수영장으로 변신한다. 그 아래쪽에 있던 조일양조장 별관 건물은 1949년부터 2012년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주차시설이 되면서 완전히 헐렸다.

⑦ 독갑다리 : 도원동 언덕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내려가면 일제강점기에 염전을 오가던 독갑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1916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숭의공구상가거리에는 독갑다리의 유래 등이 적힌 비문이 세워져 있다. 한때 이곳은 인천에서 유명한 일명 '니나노 집'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선화동의 유곽이 폐쇄되면서 많은 창부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요한 손님 접대는 독갑다리 색시집에서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 현재 독갑다리 일대는 크고 작은 철공소와 공구상들이 차지하고 있다.

⑧ 숭의자유시장 : 숭의운동장 옆에는 '자유시장'과 '평화시장'이 마주 보고 있었다. 1970년에 지어진 숭의자유시장은 공설운동장의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1971년 문을 연 숭의평화시장은 초기에는 주변의 도원동과 숭의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번성했지만, 현재는 몇 집만 문을 열 정도로 그 기능을 거의 잃었다. 올해부터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거듭난다.

⑨ 목공예거리 : 숭의동 철로변에 가면 나무 냄새가 난다. 경인선 철길을 따라 목공예 관련 업체 30여 곳이 모여 있다. 목공예점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목공점은 주로 문짝과 창문틀 등 큰 물건을 만든다. 대부분 30년 넘는 가게로 처음에는 배다리에 터를 잡았으나 철도와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원동을 거쳐 이곳 숭의동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다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은 특화 거리가 되었다.

⑩ 우각로문화마을 : '숭의동 109번지'는 한때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거칠기로 유명했다. 15년 이상 끌어온 재개발 계획이 진도를 나가지 못한 채 동네 절반은 빈집이 되었다. 점점 슬럼화하던 중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마을 주민이 되었다. 빈집이 공예방으로, 영화 제작소로, 작은 도서관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하면서 '우각로문화마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이 마을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 향토 자원 30선에 선정되었다.

“책은 양식糧食이고, 인생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긴 이라면 누구나 헌책방에 대한
기억 한둘쯤은 갖고 있다. 성공을 꿈꾸던 젊은이는 법전을,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던 젊은 엄마는 과학 전집을,
빠듯한 용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던 중·고교생들은
문제집을 사기 위해 헌책방을 드나들곤 했다.
인천에서 학창 시절 또는 젊은 시절을
보낸 이라면 누구나 배다리 헌책방에 대한 추억이
한두 움큼씩은 가슴에 남아 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60~80년대, 배다리 창영초등학교와 인천세무서 사이에는 헌책방들이 빼곡했다. 30곳이 넘었다. 삼성서림도 그중 하나로 헌책방 시대를 열었던 초창기 멤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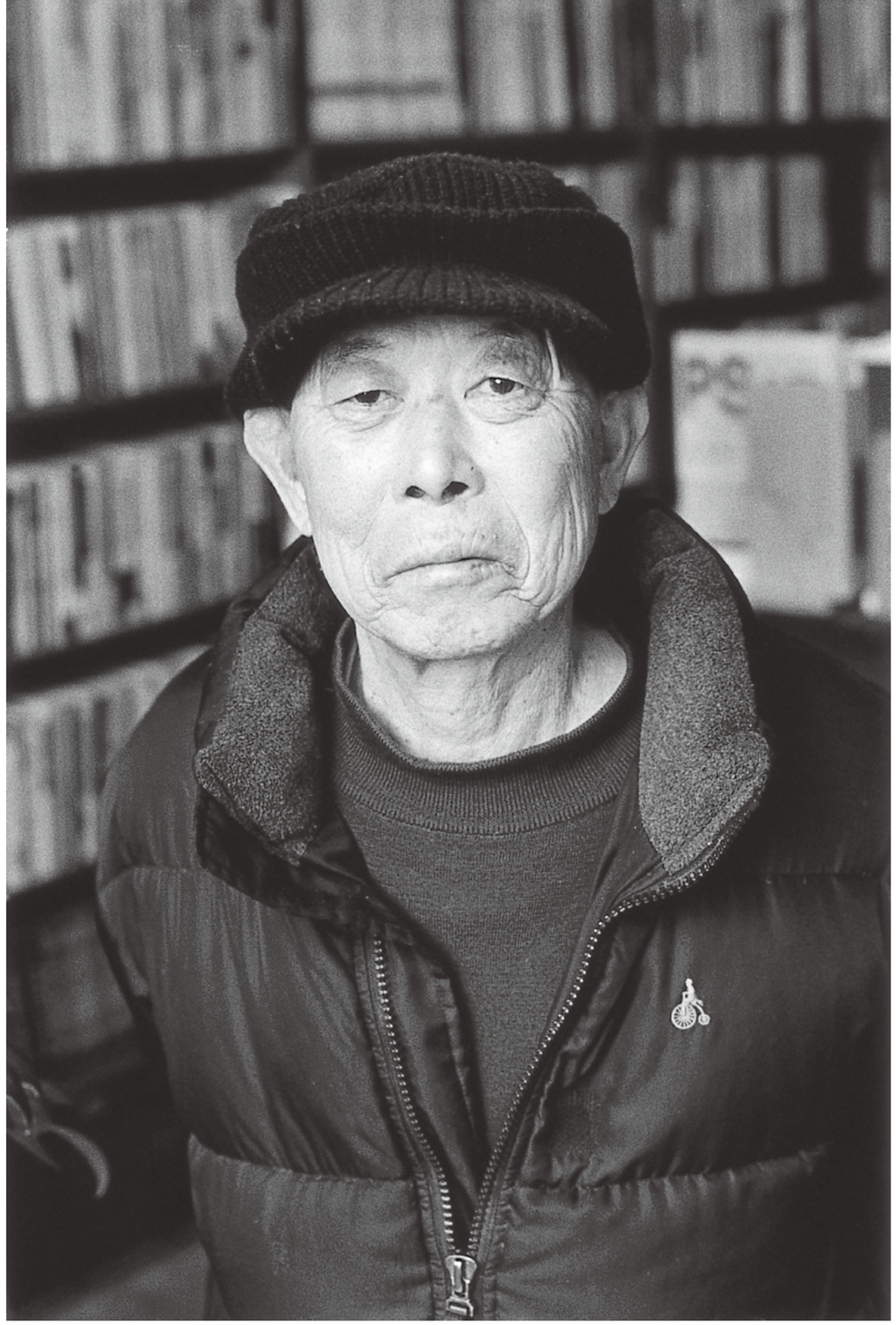
이진규 할아버지(77세)가 배다리에서 서점을 연 것은 29세 때였다. ‘인천전기’에 다니다가 친구의 아버지가 헌책방을 하는 것을 보고 직장을 그만둬버렸다. 헌책방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그는 친구 아버지의 헌책방에 들어가 한동안 일을 배웠고, 삼성서림을 개업했다. 당시 헌책방은 주로 피란민들의 생계수단이었다.

장사는 순조로웠다. “주말에는 배다리가 사람들로 새까맸어. 헌책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니까. 초·중·고 교과서 묶음은 바로바로 팔려나갔지.”

바지런한 그는 매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고물상을 돌았다. 가정에서 고물상에 내놓은 헌책을 수집하고 일일이 손질해 서가에 꽂았다. 그는 책을 보는 ‘눈’이 좋았다. 책을 보면 당일에 팔릴지, 일주일 후에 팔릴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만 한문을 잘 몰라 보물을 챙기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 “고르고 남은 책들은 청계천에 무게로 팔아넘기곤 했는데, 그중에 고서 더미가 많았거든. 그중엔 분명 엄청난 보물이 숨어있었을 텐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4개월 전 현역에서 은퇴했다. 더 이상 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건강도 받쳐주질 않아서다. 헌책과 동고동락하며 청춘을 보낸 지 47년 만이다. 사람들은 비록 그를 ‘책 장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헌책과 함께한 반평생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를 키워낸 지식의 창고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는 또한 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쓸모를 갖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현역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올해 그는 책과 관련해 작은 소망을 갖고 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맞이해 인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책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배다리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朴대통령, 인천어린이집 방문 '아동 학대' 현장 목소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보육시설 '푸른숲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와 향후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CCTV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말씀을 직접 더 많이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육정책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에서 찾아야 하고, 교사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간담회와 관련,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를 위해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을 지시했고,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보육교사 양성기준 강화 방안,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확실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주문했다.

보통교부세 4천307억원 확보… 사상 최대

우리 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의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4천307억원으로 작년 2천338억원보다 무려 84%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천시는 채무 비율이 높아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보통교부세 수령액이 다른 광역시보다 현저히 적었다.

인천시의 작년 보통교부세 수령액은 2천338억원으로 부산 8천606억원, 대구 8천107억원, 광주 5천468억원, 대전 4천661억원 등 타 광역시보다 훨씬 적다. 시는 최근 몇년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 왔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해 8월 당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만나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결국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산정 때 시의 설득논리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보통교부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편 시는 보통교부세를 수령하면 군·구 조정교부금 1천315억원, 인천대 전출금 150억원 등 작년 12월 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 2천500억원을 부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아동 학대 꼼짝 마!"

우리 시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불안과 불신이 커짐에 따라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된 어린이집과 이전에 아동 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시, 군·구 18개 반 37명의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인천N방송 시스템을 어린이집 CCTV와 연동해, 학부모가 스마트TV나 스마트폰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8월쯤 어린이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2898

대형마트 3사 손잡고, 전통시장과 포옹한다

우리가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달 21일 시청에서 인천시·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와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마트 업계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사업은 많았지만 이 3사가 공동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 3사는 상생기금 1억원을 모아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와 '인천상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문의 시 생활경제과 ☎440-4223

中企 앞장세워 올해도 수출 300억 달러 넘는다

우리 시는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작년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약 33조원) 수출을 달성한 기세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2015년도 수출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해외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시의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82~4

가족공원 장례시설 사용료, 2월부터 인상

인천 지역 가족공원의 장례 시설 사용료가 이달 2일 인상된다.
시는 봉안당, 자연장지 조성 등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해 매년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장사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은 인천 주민이 최대 7만 원 인상되고, 타 지역 이용자는 현행 가격으로 유지된다. 또, 봉안시설은 최대 20만 원 인상되며 최대 사용기간은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어든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440-2833

수도권 매립지 경제효과 10조

우리 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합의로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전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 지분권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시 1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산 총 8천180억원과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1조 8천450억원으로 분석했다.

문의 시 자원순환과 ☎440-3588

영종도에 '한국형 복합 리조트'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K-팝 등 한류를 접목하고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복합 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형 복합 리조트와 테마파크형 복합 리조트를 추가 유치, 대규모 복합 리조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복합 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외국인 지분 비율(51% 이상)로 제한된 최대 출자자에 국내 투자자(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342

펜타포트 음악축제, '인천의 대표 축제'로 우뚝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유망 축제로 선정되고, 올해는 인천 축제 중 유일하게 유망 축제에 이름을 올리면서 인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유망 축제 선정에 따라 국비 9천만 원 및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22

'기록의 사나이' 김도훈, 인천UTD 감독으로

인천유나이티드가 지난달 13일 김도훈(45) 감독을 인천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김도훈 감독은 1995년 전북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2005년 성남에서 은퇴할 때까지 K리그와 J리그를 오가며 K리그 통산 257경기에 출전해 114골 41도움을 기록,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해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다. 김 감독은 1993년 유니버시아드 대표를 시작으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다.

문의 인천유나이티드 ☎423-1500

'대형 화재 막아라' 소방시설 전부 손본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시·군·구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입주민 대피훈련계획, 건물 간 거리, 외벽 재료, 필로티 주차창, 방화구역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초까지 소방서별 취약지역을 선정해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갖고, 좁은 도로 등 출동 장애 지역에 대한 진입로 일방통행 지정, 소방차 통행로 황색문자 노면 표시와 주·정차 금지 구획선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문의 인천소방안전본부 ☎870-3051

'공기도 맑은 인천' 만든다

우리 시는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14일 대기오염의 중·장기적인 개선대책과 지속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2차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시행 계획에서는 인체에 위해성이 큰 PM2.5, 오존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녹색도시 구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리, 과학적 모니터링 기반 조성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사업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440-3502

'시민의 소리 전하는' 시민자문단 출범

인천시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 지난달 14일 발족했다.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정된 자문단은 교수·기업인·상인·주민자치위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제분과·사회분과·시민소통분과 등 3개 분과에 20명씩 나뉘어 지역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조언도 할 예정이다. 경제분과와 사회분과는 2년간, 시민소통분과는 1년간 활동한다.

문의 시 정책기획관실 ☎440-2383

더 재미있고 더 알차진 의정아카데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2015년도 의정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2월 중에 인천시의회 의정아카데미를 개설할 계획이다.
의정아카데미는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아온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의회의도 실연해 보인다.
2015년 의정아카데미는 늘어나는 학교 측의 수요를 감안해 참여 횟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안전대책 내놔야"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서구 석남1동 주민센터에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주변 주민 피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작년부터 시험 가동 중 발생하는 불꽃, 소음 등과 관련해, SK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준 인천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장 증설을 허가해 준 서구청을 비난했다. 또한 공장 가동 중지와 이전을 요구했다. 공장 이전이나 폐쇄가 어렵다면 주민 이주대책과 믿을만한 안전대책을 SK 측이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SK 측에서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강영향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관리특위 취약시설 점검 보고받아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오후, 특위 위원,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교육청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시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과 '안전관리 분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시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은 특위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인천시 전역에 걸쳐 위험, 취약시설 등에서 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에서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들로, 주관부서 및 시설물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가능 23건, 부분추진 3건, 추진유보 1건, 추진불가 2건으로 분류하고 총괄 보고하였다.

박승희 부의장, 상이군경회서 감사패 받아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상이군경회 인천시지부로부터 국가보훈단체 활성화 등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연기 인천지부장은 "박승희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보훈단체와 상이군경을 위한 각종 법규 개정, 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마련 등 정성과 진정을 다해 보훈단체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어, 그 공로를 기려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알토란같이 쓰는 법' 논문 나와

인천광역시의회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한 후 만든 첫 번째 연구단체다. 이 연구회는 120일간의 연구 기간에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물로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 논문(부록 포함)'을 발간했다. 이 논문에는 인천시 체육담당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체육시설 운영 위탁기관, 체육 분야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체육 관련 단체 등을 초빙해 체육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시민공모전 등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포함한 인천 시내 1만석 이상 대형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도 들어 있다.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을 아시나요?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소방안전본부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근 의정부와 양주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아파트 화재사건을 통해 소방차량 진입도로 확보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고, "극단적 방화 및 대형화 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시민과 소방공무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 시는 안전정책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서 '해피 뉴 이어' 인사회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6일 시의회 중앙홀에서 의정과 관련이 있는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15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청연 교육감, 이영환 의정회장, 박승희 1부의장, 이용범 2부의장, 심상길 초대의장, 강부일 3대 의장, 박창규·강창규 5대 의장, 류수용 6대 의장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향후 의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3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4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제2회 서동이 가족교육극 Festival! Ⅳ 가족 뮤지컬 '해님달님'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1만5천원
☎580-1135

5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6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7

뮤지컬 '그날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322-212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데아 네이쳐'
오후 3시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1588-2341

8

뮤지컬 '그날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322-2121

11

제2회 서동이 가족교육극 Festival! Ⅳ 환경보호 교육 뮤지컬 '바다사랑 거북'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1만5천원
☎580-1135

13

제18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873-7772

국악 현악 앙상블 'The 류'의 韓中현 프로젝트 '이심전심(以心傳心)'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천원
☎505-5995

14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5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1층 8만8천원, 2층 7만7천원
☎1544-3901

15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5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1층 8만8천원, 2층 7만7천원
☎1544-3901

21

영화상영 '이디야와 얼음왕국의 전설'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25

2015 커피콘서트 2 '하프선율과 함께하는 String, String'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1588-2341

26

Passione(열정) Concert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888-9911

28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7시
전석 3만원
☎02-2681-2075

한·중 현악기의 앙상블이 빚어내는 감동의 울림

국악현악앙상블 'The 流(더 류)'가 한국·중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와 소리, 퍼커션으로 구성된 새로운 창작곡들로 음악적 감성과 메시지를 전한다. 아름다운 아시아 대륙의 대자연을 모티브로 두 나라 현악기의 어울림을 전하며 관객들과 음악적 교감을 이룬다.

※ 국악현악앙상블 'The 流(더 류)' : 우리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국악 연주단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 듯 낮은 자세로 관객 곁으로 가까이 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국악현악앙상블 'The 流'의 '이심전심'
일시 2월 13일 오후 7시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3천원
문의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47개 현의 향연! 하프와 첼로, 바이올린의 만남

커피의 그윽한 향기와 현악기의 깊은 소리가 만난다. 커피콘서트의 2월 무대는 하프를 주인공으로 꾸미는 아주 특별한 무대다. 하피스트 김경희와 그녀의 음악적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기욤 쉬트르, 그리고 첼리스트 양성원이 최상의 앙상블을 선보인다.

커피콘서트II 하프선율과 함께하는 String! String!
일시 2012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이달의 展

포커스 2010, 師弟전(사제전)
2월 3일~14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황다연 개인전
2월 3일~14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관공서와 학교 강당을 예식장으로 쓰지 마시오

6.25 전쟁의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에서, 당시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되도록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지금은 송도국제도시로 변한 동춘동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어민들.

공동목욕탕 대폭 증설

인천 시내에 28개소나 되던 목욕탕이 6.25 사변 이후 8개소로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남은 8개소의 목욕탕마저도 시설이 불충분하여 시민들의 비난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도시 위생시설의 불비(不備)는 30만 인천시민의 보건상 대단한 위협을 주고 있어 금번 인천시 사회과에서는 목욕탕을 대폭 증설하고자 20개소의 건축자재와 수리용 자재를 도를 거쳐 보건부에 신청 중이라고 한다. 동란으로 쇠약한 국민생활의 실정과 더욱이 항구도시라는 특수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은 극히 중대한 문제로 시에서는 대중목욕탕의 증설을 극력 취진시키고 있다. 사회과 안이 순조로이 실현된다면 연차계획으로 20개를 증설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 다섯 개소의 대중목욕탕이 시내에 준공되리라 한다. (1953년 2월 11일자)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라

요식업자와 미용업 등 위생에 관계되는 영업소의 종사원들에게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케 하라는 지시는 누차 통고한 바 있었으나 실시하고 있는 극소수로 시에서는 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최후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즉 각종 위생관계접객업자(요식업, 이용업, 숙박업, 제빵·제유업)들은 오는 3월 5일까지 위생복, 마스크 및 모자를 착용하라는 바 이의 조제 부담은 업주가 할 것이라는데 만약 위반되는 업자들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하리라고 한다. (1953년 2월 25일자)

적령 아동 8천여 명, 국교(國校) 수용 무난

초등학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은 드디어 오는 3월 신학기를 기하여 실시될 것이다. 교육관계 당국에서는 적령 아동 전원 취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정 경제형편으로 취학하지 못할 아동에게도 학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인천시 관내 금년 취학예정 아동은 약 8천명으로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중 공립 8학교에 5천500여 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를 기타 국민학교에 수용할 것인데 금년도 적령 아동취학에는 별 난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1954년 2월 17일자)

강당을 예식장으로 쓰지 마라

요즘 관공서 건물 혹은 학교 강당을 결혼식장이나 연회식장으로 개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처사는 본래 사용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관기(官紀) 유지와 건물 비품 관리상 타당치 않음에 비추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번 인천시에서는 관계 당국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첩 하달하였다는 바 앞으로 이 점 각별 유의 있을 것이 요청되는 바이다. (1955년 2월 14일자)

'슈산보이'에 목욕

경찰당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를 친절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민중에 대한 최대의 친절을 베푼 바 있다. 인천수상경찰서(仁川水上署)에서는 지난 9일 인천항 부두를 무대로 하여 UN군을 상대로 구두닦이를 하는 소위 '슈산보이' 한철승(17) 외 30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그들 어린이의 몸을 손수 닦아주는 등 보기 드문 친절을 준 바 있어 일반의 칭송이 높다. (1955년 2월 14일자)

백색계 26명 등 시내 혼혈아 40명

인천시 사회과에서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천에 산재하고 있는 혼혈아 수는 40명이라는데 국적별 통계는 알 길이 없으나 백색계 혼혈아가 최고로 26명, 흑색계가 8명, 황색계 혼혈아가 6명으로 되어있다 하는데 그 중 남아가 23명에 여아가 17명이며 아홉 살 아이가 최고 연장자라 한다. (1955년 2월 1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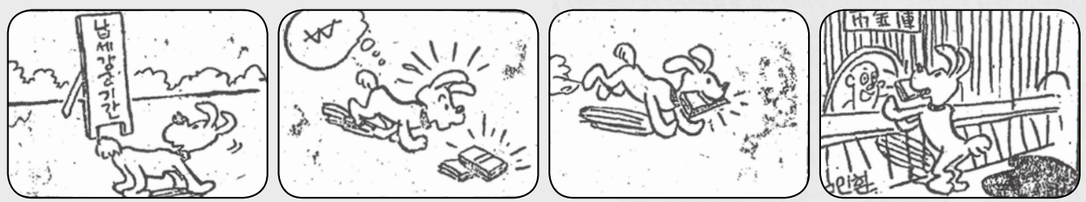
동춘, 고잔 조개 채취 허용

인천시에서는 패류의 번식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이래 시 직영인 관할 동춘동과 고잔동에 각각 10만 평씩의 조개 양식구를 3개소 설치하고 지금까지 이 구역의 채포(採捕)를 금지하여 왔다. 요즘 조개의 고가(高價)를 계기로 춘궁기를 앞둔 영세 어민의 경제를 윤택하게 위하여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개월간 이 지구를 개방하여 채포를 허가키로 했다. 그런데 채포 사용 기구는 호미에 한하여 어업보호 취체규칙에 의한 체장미달(體長未達)의 잡패는 채포를 엄금하기로 했다. (1955년 2월 14일자)

농촌순회 문고 설치

인천시 농림과에서는 농촌개화운동으로서 관내 농촌의 중견인물인 농업교도원과 농촌청년구락부원의 양성을 비롯해 농촌 성인교육의 보급 실시는 물론 전체 농민의 지식 향상과 농촌문화 촉성을 기하기 위해 농촌 필수서적으로 편성된 농촌순회문고를 각 농촌 동에 설치하고 각 동에 순회하여 전 동민으로 하여금 열독케 하리라 한다. 이번 열독에 있어서는 각종 모범 부락 및 4H 클럽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열독케 하리라 한다. (1956년 2월 22일자)

납세 계몽 만화_ 1956년 2월 1일 자



직업훈련 교육생 수시모집

2015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직업훈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취업 희망자(구직자) 대상 연중 수시모집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특수용접 전문가	전기, CO2, TIG(아르곤), 산소 용접 등	3개월 (7시간 60일 / 420시간)
기계가공 전문가	CNC, MCT, 범용선반 등	
기계설계제작 전문가	2D,3D CAD/CAM(UG, MasterCAM 등)	
전자시스템제어	통신기기 회로설계, 무선설비 등	3개월 (6시간 60일 / 360시간)

인터넷접수 sanhak.kopo.ac.kr/incheon
방문접수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
(송내역 1번출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1팀
팩스접수 519-6169
전화상담 510-2126/2345
특전 식대 및 교재 / 교육훈련비 무료 /
훈련수당 지급(20만원/월) / 수료자 전원 취업알선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월 5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대상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내용 개회,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문의 260-5394

2015년 인천인력개발원 교육훈련 신입생 모집

인천시에서는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훈련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신청기간 1월 23일~2월 25일
신청자격 (1년 과정)학력제한 없음 (2년 과정) 고등학교 졸업 이상
신청특전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장려금 매월 20만원 지급,
수료후 취업알선 등
제출서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ic.korchamhrd.net/) 또는 방문접수
면접일시 및 장소 2월 26일(목) / 인천인력개발원
문의 810-6523~3

2015 국제수송기계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관내 수송기계 부품 업계의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2015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2015 Global TransporTech)'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박람회 개요
- 사업명 : 2015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2015 Global TransporTech)
- 전시기간 : 6월 4(목)~5일(금) / 2일간
- 사업장소 : 송도(송도컨벤시아)
- 전시규모 : 250개사 내외
- 전시구성 : 전시회, 무역/구매상담회, 세미나 등
- 전시품목 : 6대 수송기계부품 전반
※ 승용차, 상용차, 항공, 선박, 철도, 중장비/농기계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참가신청
- 신청자격 :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0일(화) 18:00 한
- 모집업체 : 40개사(접수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 문의 : 440-4283

매직컬 정글대탐험과 함께하는 실내 썰매

인천도시공사는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초대형 체험놀이터 '매직컬정글대탐험과 함께하는 실내 썰매장'을 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환상적인 놀이동산입니다.

레저종류 실내 썰매, 키즈범퍼카, 영·유아들을 위한 토들러존,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기차, 겨울방학 체험학습
숙제까지 할 수 있는 정글대탐험존 마술, 뮤지컬을
하나로 한 매직컬 공연(피터팬) 등 다채로운 이벤트
장소 송도컨벤시아
기간 2월 22일까지
문의 1588-6180

인천지역 농·수산물, 방사능 걱정 마세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집중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누출 사고 후 방사능에 대한 인천시 대처

2011년 일본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인천시는 바로 예비비를 편성, 방사능 장비를 구매해 현재까지 인천시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실시.

정밀 검사 결과

연도	검사 실적	결과
2012년	113건	불검출
2013년	177건	
2014년 7월 말	240건	

현장 검사결과 이동식 방사능 검사장비로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도매시장의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 불검출.
추진 방향 검사결과를 식약처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
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문의 440-8514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2015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오니,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신청기간 1월 27일~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자금별 지원사항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7천억원(은행자금 협조 융자)
- 지원대상 : 제조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 이자보전 : 2~3.5%
- 협약은행 : 기업은행 등 12개 시중은행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지원규모 : 1천억원
– 업종구조고도화 : 700억원
(공장확보, 연구소, 자동화설비, 벤처 등)
– 산업구조고도화 : 300억원(지식산업센터건설, 재해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 등
- 대출금리 : 3.0~3.5%
문의 260-0227, 0247, www.iba.or.kr

송림체육관 대관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송림체육관(주경기장, 연습경기장)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및 개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시설 송림체육관(주경기장, 연습경기장)
접수기간 연중
사용대상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또는 개인
사용범위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행사,
일반 행사 개최 및 상업광고 부착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공문), 세부행사계획서, 개인(주민등록등본 또 는 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콘서트(공연) 시 공연계획서 첨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456-7830)
- 접수장소 : 송림체육관(인천시 동구 염전로 30)
문의 456-7812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무료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관내 작목반 농민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무료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약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은 농산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검사의뢰
◦ 검사대상
– 인천 관내(경작지 주소지가 인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 검사소요량(kg) : 1kg 이상
– 검사 의뢰 시 농산물을 균등하게 섞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채취
– 검사 항목 : 사용농약 특정성분(신청서에 기재한 농약에 한함)
◦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 방문 접수
⇒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동 4층에 위치
– 접수 시 검사신청서 작성

검사 결과
◦ 적합 여부 : 신청서에 작성한 사용농약에 한하여 판정
◦ 결과 통보 : 유선(전화)으로 신속히 통보
접수 후 2일(주말, 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 예상
◦ 검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위해서만 사용
◦ 문의 : 440–5605~10

사진 공간 배다리 '산이 된 섬'전

사진 공간 배다리에서는 '인천중앙전문학교 5인전'과 이호진 사진전 '산이 된 섬'을 전시합니다.

전시명 인천중앙전문학교 5인전
◦ 경계선(Boundary Line, 우리는 지금 경계선 위에 있다)
◦ 기간 : 2월 21일~3월 4일
◦ 참여 작가 : 김유진, 김주영, 유지헌, 장근석, 정지윤
전시명 이호진 사진전 '산이 된 섬'
◦ 기간 : 1월 31일~2월 6일
문의 070–4142–0897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행

인천교통공사는 그동안 선·후불교통카드와 정기승차권에 대하여 발행하던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1회용 교통카드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 1회용 교통카드 발매대금(보증금 500원 제외)
일시 1월 17일(토)부터
형태 무기명 방식
등록 고객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정보입력
문의 451–2114

시민과 함께하는 봄학기 강좌

미추홀문화회관은 시민들과 함께 할 제55기 봄학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고 알찬 무료 특별기획 강좌, 봄맞이 단기특강 등 유익한 강좌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좌기간 3월 2일~5월 23일 (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1월 26일~03월 07일
장소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 765–0220, 0250,
www.mchart.co.kr / twiter.com/mchart0250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어린이 : 어린이 밸리댄스(밸리댄스전문강사 장경진)
◦ 성인 : 서예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성인영어회화 왕초보반(영어회화전문강사 솔로몬정)
성악교실(성악가 조외숙)
성인중국어회화 생초보반(중국어회화 전문강사 김영애)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서양화가 라선)
요가(국제요가아카데미 원장 장은영)

미추홀도서관 2월 문화행사

미추홀도서관은 2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문의
이민숙 작가전	다양한 서양화 30여점 전시	2월 18일(수) ~3월 8일(일)	전체	440–6664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책꾸러미 배부 및 다양한 책놀이 진행	2015년 2월 26일(목) 11:00~12:00	만18개월 이하 영유아 및 부모	440–6648
송도국제기구 도서관 「화요 시네마」	월별 테마영화 상영	매주 화요일 14:30	전체	851–6651
기증도서 수집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기증도서 수집	상시	전체	440–6656

인천사회적은행 창업·경영개선 자금 지원합니다

인천사회적은행 (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인천시와 협력하여 개인 사업자를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저리자금 지원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예정지가 인천시내인 만 20세 이상의 인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제외)로서
① 3인이하 가구는 연간 세전 총가구 소득 3천700만원 이하인 자
② 4인이상 가구 월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다음금액 이하인 자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금액	334만원	395만원	457만원
지역건강보험료(월)	9만원	10만원	12만원

③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장·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 해당자
※ 사업예정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보증추천 및 대출실행

인천 최초의 야학, 인향초·중·고등학생 모집

인향초·중·고등학교는 어려움 때문에 제때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한 야간학교입니다. 배움의 열정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육과정 초·중·고등 과정 각 1년 수료
(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지도)
모집인원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수업시간 월요일~금요일(오후 6시 30분 시작)
본교소개 53년의 역사의 인천 전통의 야학
원서접수 1월부터 선착순 접수,
평일 오후 2시~5시까지(토, 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inhyang.net
주소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서로 51번길 123–19
문의 772–4061

독자가 꾸미는
인천 사는 이야기

가족과 다시 찾은 고향

직장생활 때문에 고향인 인천을 떠난 지 어언 15년.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다시 찾은 나의 고향 인천. 차이나타운을 여행했는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국경** 강원도 동해시

2015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2015년 1월 1일. 어머니와 함께 계양산에 올라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씩 간직하고 정말 많은 인천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올해 인천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김태홍** 계양구 경명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고양이

어느 날 버스정류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마중 나온 듯.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을 기다리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번쩍 안고 웃음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신승남** 부평구 안남로

2014 인천AG를 기억하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순찰하시던 경찰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태워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도 함께한 그 때를 추억해 봅니다. **오영미** 서구 여우재로

동화 속 세상이 현실로

인천에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인천은 정말 가볼 곳이 많습니다. 차이나타운 가까이에 이렇게 예쁜 동화마을이 있었다니. 아이들과 동심의 세계에 빠져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정문기** 남동구 앵고개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싣고 바다로

월미공원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답게 듬직한 면모를 자랑하는 인천항! 우리 경제의 희망을 싣고 오늘도 뱃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채영미** 남구 매소홀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의 오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나 겪었지만, 누구도 기억 못 하는
햇살처럼 눈부신 우리 모두의 기억, 36개월에 관하여

36개월 UNDER 36 MONTHS

지은이 송기철(skc7000@lycos.co.kr)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출간일 2004년 12월 23일
값 1만5천원

BOOK

혹시, 어릴 적 36개월 이전 일들을 기억하니?

작가는 아내 그리고 딸 햇살이와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예쁘고 소중한 딸 햇살이의 일상에 카메라 앵글을 맞췄다. 아이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 매력에 푹 빠지는 36개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귀여운 몸짓, 아장아장 걸으며 하고 싶은 일은 꼭 저지르고 마는 장난꾸러기다. 날마다 날마다 예뻐지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 새로운 말을 배워 부모를 기절시키는 아이. 작가는 아이의 소중한 날들의 기억을 사진과 글로 남겨줄 계획을 구상했다.

잊힌 기억 36개월을 채우는, 또 다른 기억 36개월

누군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존재했던 36개월 그 순간을 아이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이가 있는 아빠, 엄마라면 부모의 마음으로, 미혼의 여자라면 책 속 햇살과 같은 딸의 마음으로, 미혼의 남자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룰 따뜻한 가정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아이의 눈빛에서 보다

사진만으로도 보는 이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선사하며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것 역시 이 책이 지닌 매력이다. 책 전반에 걸쳐 따스한 햇살 속에 있는 듯 일관된 톤을 유지하며 보여주는 유쾌한 일상의 사진들. 병원 가기 싫어 우는 아이의 모습, 할머니와 보내는 일상, 샤워한 후 엄마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모습 등 천진난만한 아이의 일상을 자연스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빛과 공간을 절묘하게 활용해 아이의 감정을 사진 속에 녹여낸 표현력은 유아 사진에 대한 저자의 특별한 감각과 해석을 느끼게 해 준다. 예쁜 모습에 집착하거나 차렷 자세로 카메라를 향해 과장된 유아 사진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면, 절제와 단순함을 바탕으로 한 빛과 공간 속 순간 포착이 사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햇살이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의 36개월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이의 세상 속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 이 코너는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천 관련 책을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리라

글 김영승 시인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리라'는 나에게는 '나는 가야 해' 이다. 아니 나는 '나는 가야 해' 하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 아니 돌아와야 한다. 가야지 돌아오지 않는가. 그 모순과 비극이 나의 삶인데 그 공존이 또한 나의 길이다. 그 반복은 또한 은총이고 축복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약성서 시편 126장 5~6절의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씨는 정성으로 뿌리고 기다려야 한다. 가꾸며 가뭄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부터 먼저 따려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곧 '사랑'이다.

나는 무엇의 씨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뿌리려 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려 했는가? 모른다. 아니 아직은 모른다. 그것을 그냥 '꿈'이라고 말해 두자.

'봄이 오면 봄옷으로 갈아입고 기수(沂水)에 나가 목욕을 하고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겠습니다(詠而歸)' '한 증점(曾點)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오여점(吾與點)' 즉 '내가 증점과 함께하리라'하셨다. 『논어』「선진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효자로 유명한 증참(曾參)의 아버지 그 증점(曾點)은 그 전에 먼저 무우대(舞雩臺)라는 단(壇)에 올라가 바람을 쐰 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다. 아마도 춤을 추었으리라. 나는 『아들과 함께 춤을』이라는 명상록을 준비 중이다.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까. 아마도 아니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동요 그 「과수원길」을 부르겠지.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끗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그 후렴구를 나직이.

그리고 나는 또 돌아갈 것이다.

연일 혹한이다. 땅을 곡괭이로 찍으면 불꽃이 튈 것 같다. 그해 겨울 아내가 수술한 뒤 그 병실에서 아내가 사준 이 검은 잠바는 4년 동안 입었다. 물론 처제를 시켜 사오라고 해서 사온 겨울 잠바다. 그러고 보니 지난 4년 동안 겨울에 한 신문이나 잡지 등등 인터뷰 사진들은 다 이 검은 잠바를 입고 찍었다. 나의 이 검은 잠바는 주머니가 많아서 참 편한데 나는 나의 이 낡은 검은 잠바가 참 좋다. '기수(沂水)'는 어디에나 있다. 나의 '지금-여기'가 곧 나의 '기수(沂水)'이다. 물론 '눈물'도 나의 '기수(沂水)'이다.

나는 이 겨울 이 검은 잠바를 입고 미리 나간다. 그리고 미리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말한다. 그 말은 곧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의 뜻이다. 이미 기쁘다.

시인 김영승

1958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6년 계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반성·序」 외 3편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데뷔. 2011년 제29회 인천시문화상 수상. 2013년 제13회 지훈문학상 수상. 2014년 제1회 형평문학상 수상.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지극히 생각한다면 무엇이 멀랴"

'지극히 생각한다면 무엇이 멀랴…'
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哉—論語(논어), 子罕(자한).
나는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공포의 간판

1997년 IMF 사태.
온 국민을 'I'm F'로 만든 좌절의 단어.
이발비조차 힘겨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발관은 '반값 이발'을 내걸고
아예 간판을 갈아 달았습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했지만
이발관은 이겨 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저런 간판이 내걸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 중구 사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